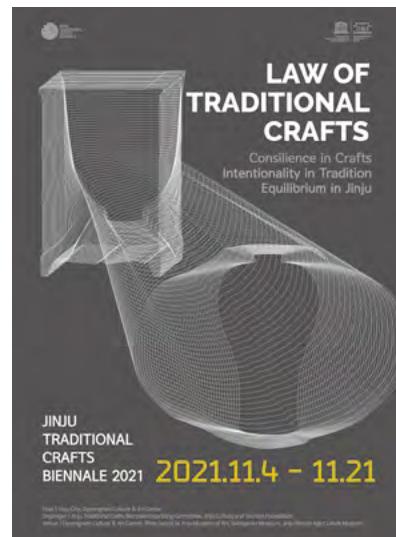


진주, 한국

진주시 첫 번째 공예 비엔날레 개최



진주시는 올해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진주시의 네 곳의 전시장에서 2021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 행사는 2019년 11월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진주시가 진주시의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 1회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의 주제는 “전통공예의 법칙”이었다.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 그리고 우리 공예를 관통하는 법칙, 원리, 혹은 규칙이 존재하는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의 과제였다.



이 주제에 따라서 비엔날레는 4곳의 전시관에 분산하여 개최되었다. 먼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예의 합(合) Consilience’을 주제로 13명의 해외 작가와 12명의 국내 중견 공예작가의 교류전이 펼쳐졌다. 해외 작가로는 프랑스 리모주(France, Limoges)의 크리스틴 웨스웨일러(Christine Waxweiler), 미국 파두커(U.S. Paducah)의 렉시 밀리칸(Lexie Millikan),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Fabriano의 산드로 티베리 (Sandro Tiberi)와 카라라(Carrara)의 안나 파브리치(Anna Fabrizi), 일본 가나자와(Japan, Kanazawa)의 토시오



오히(Toshio Ohi), 태국 수코타이의 손챗 찬다와랑 (Sonchat Chanthawarang),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Republic of South Africa, Cape Town)의 엔딜 딜라베인(Andile Dyalvane), 불가리아 가브로보(Bulgaria, Gabrovo)의 칼린 다스칼로프(Kalin Daskalov), 에스토니아 탈린(Estonia, Tallinn)의 마리아 폴(Maria Poll), 아프리카 베냉, 포르토노보(Benin, Porto Novo)의 세톤지 파스칼(Setonji Pascal) 등이 창의도시 작가로 참가하였고, 치앙마이(Thailand, Chiang Mai)에서는 전통의상의 변천사를 담은 동영상을 보내왔다. 이밖에 오스트리아 브레겐제르발트(Austria, Bregenzerwald)에서 마르쿠스 파이스트(Markus Faisst)와 안톤 모어(Anton Mohr) 등이 참가하였다. 이들과 함께 12명의 한국 중견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성자시립미술관에서는 ‘전통의 향(向) Intentionality’을 주제로 한국의 원로 공예작가 7인의 초대 작품이 전시되었다. 여기서는 전통공예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통공예의 미래 방향은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시민들은



최고 수준의 한국 공예를 감상할 수 있었다. 남가람박물관에서는 ‘진주의 형(衡) Equilibrium’을 주제로 진주의 전통목공예와 두석작가전이 열렸다. 공예의 법칙과 지향이 진주 전통공예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8명의 진주 전통공예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가장 전통있는 진주의 공예 분야인 소목 작품들에서 진주 전통공예의 균형잡힌 미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가구 장식(裝錫)으로 구성된 ‘태정 컬렉션’ 전시와 동반행사인 “진주공예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진주전통공예미디어전’이 열렸다.

또한 가브로보(Bulgaria, Gabrovo)의 칼린 다스칼로프(Kalin Daskalov), 빌란디(Estonia, Tallinn)의 마리아 폴(Maria Poll), 포르토노보(Benin, Porto Novo)의 세톤지 파스칼(Setonji Pascal)은 10월 초에 입국하여 1달간 진주아티스트인 레지던스에 참여하였고, 진주의 작가들과 협업한 작품을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전시하였다.



비엔날레 기간 중인 11월 5일에는 비엔날레 참여 해외작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파두카의 렉시 밀리칸(Lexie Millikan), 수코타이의 손챗 찬다와랑(Sonchat Chanthawarang),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의 코디네이터로서 이탈리아의 공예작품들을 섭외했던 페르난도 자카리아(Fernando Zaccaria)씨, 그리고 비엔날레 기획위원장 정병훈 교수(Byung Hoon Jeong) 등이 참가하여 “전통공예의 법칙과 지향점”을 주제로 토론했다.

11월 11일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 포럼(2021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 in the Digital Environment)를 주제로 국내외 창의도시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비엔날레 전체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작가는 해외 13명, 무형문화재 및 명장급작가, 원로 공예작가를 포함하여 국내 작가 30명 등 총 43명이었으며, 국내외 합쳐 총 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관람객들은 최고 수준의 공예 작품을 감상한 것에 만족하면서, 시민도슨트들의 능숙하고도 친절한 설명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이성자 시립미술관에 마련된 김익영 작가의 도예 작품들과 이우환 화백 작품 “조용”으로 꾸며진 ‘명상의 방’은 신을 벗고 입장하여 감상하도록 마련되었는데, 이번 비엔날레의 백미로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비엔날레 관람자수는 약 1만 5천여명으로 추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관람자 규모 면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면 행사로서의 비엔날레는 21일 종료되었지만, 22일부터는 온라인 상의 비대면 비엔날레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어진다. 주최 측은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사이트(www.jinjubiennale.com)에서 메타버스상의 3D 가상현실로 모든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진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통공예 작품들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통공예 행사로 발전시켜서, 진주공예의 산업화와 국제 교류 확대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병훈

(진주 UCCN 포칼포인트)